

작품 개요

「Suite 'Exotic' for Children」(이국풍異國風 조곡)은 작곡자가 20세 때인 1942년 4월 30일 작곡한 곡으로서, 악보에 Op.1로 적혀 있다. 이 곡은 1963년 이상사에서 출판한 『표준피아노명곡집』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곡에 대한 해설을 다음과 같다.

이 곡은 나의 음악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작곡된 소품이다. 다소 그로테스크한 「프롤로그」, 일본 풍의 「차르메라」, 아라비아 풍의 원시적인 「무곡」, 불란서 풍의 정적이며 우아한 「멜로디」, 야성적인 코사크 풍의 「무곡」- 이상 5곡으로 된 이 작품은 즉흥성을 띤 한 폭의 스케치이다.

이 곡은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 발표회>에서 신재덕(申載德, 1917~1987)에 의해 연주되었다.

*** 제2번곡의 제목 「차르메라」(Charmera)는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오보에와 비슷한 목관악기로, 일본에서는 라멘을 파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도착했을을 알려줄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작품 해설

이 곡은 무용곡의 특징을 이용하여 장단조의 조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1번곡 <프롤로그>는 단조의 조성음악이지만, 제2번 곡부터는 장단조의 틀을 벗어난다.

제2번곡 <차르메라>(Charmera 또는 Charumera)는 새야화현과 4도병행 선율이 지배하는데, 이는 후에 오는 나운영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지화음은 제3음 없이 제1음에서 제5음까지를 모두 울린다.

이 곡은 나운영이 나아갈 음악적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네 마디가 프렐류드적인 5음음계 패시지이다. 왼손을 오른손이 따라하는, 단선율적 방식인데, 이는 이 음악의 음계를 소개한 것이다. 그 이후의 음악도 대체적으로 5음음계의 음들을 사용한다. 화성들이 5음음계를 뭉쳐서 만든 5계화음이다. 가장 선호된 화음은 새야화현이다. 마디8의 음영진 새야화현은 구성음이 약간 다르지만, 앞의 새야화현이 5음음계 내에서 한 단계씩 아래로 이동반복한 것인데, 이 부분은 5계화음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

표면적으로 5음음계를 넘어서게 하는 임시기호 붙은 음들이 나타나지만, 이는 5음음계 음들의 변형으로 이해된 것이다. 즉 나운영적 언어로는 변한 음은 음(陰)의 음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마디6의 a^b , 마디9의 a^b 가 그러하다. 이 음들은 각각 앞서간 본래 음(나운영식 표현: 양陽의 음)의 변형이다. 5음음계를 벗어나는 음으로는 마디8의 b^b 가 있는데, 짧기

도 하거니와 상성부의 그림자 성부에 나타난다. 그림자 성부는 본성부와 4도병행한다. 이것이 마디11에서 b' 로 바뀌어 양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b^b 음은 나운영 음악에서 '5음음계의 제6음' 에 속한다. 이는 5음음계의 확장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 음이 음과 양으로 변하는 것은 번진음 음악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의 악보에는 3화음이 기피된 것을 보여준다.

새야화현들은 피아노 음악에 타악기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같은 음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타한다. 이 음악은 무용곡이라서, 리듬적 특징을 살리는 방편으로 새야화현을 타악기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새야화현이 연타하지 않고 긴 음에 머무르는 마디10의 경우는 종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새야화현은 종지의 능력도 있다.

제3번곡 〈아랍춤〉은 왼손이 주로 4도 음정의, 동적인 리듬을 곡의 끝까지 일관되게 연주하고, 오른손은 아랍적 음계의 선율과 장식음을 단선율로 연주한다. 종지는 새야화현을 울린 후 전음계의 일곱 음 모두를 동시에 울린다.

제4번곡 〈멜로디〉는 프랑스 음악의 장르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새야화현, 4도병행 선율, 병행적 삼화음, 감3화음, 증3화음을 뒤섞어 사용한다.

제5번곡은 〈코사크춤〉으로 완전5도와 완전4도로 조립된 동적인 왼손이 - 간혹 싱크 리듬으로 바뀌며 -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변형되는 음계의 선율이 울린다. 화성 역시 선율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된다.

이 모음곡은 나운영이 기능화성적 틀을 주로 민속적 춤곡을 통해 극복하려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일정한 리듬틀들은 바르톡의 음악과, 선율병행은 드뷔시의 음악과 가깝다.

- 홍정수 「한국음악 20세기 1 작곡의 시작:1920년대까지 출생한 작곡가들」 중에서 -

I. prologue

M.M. ♩ = 69

(2 v2)

(2)